



여행 > 호텔 > 레저

아웃바운드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며

SK증권 미래산업/미드스몰캡나승두

02-3773-8891 / nsdoo@sksec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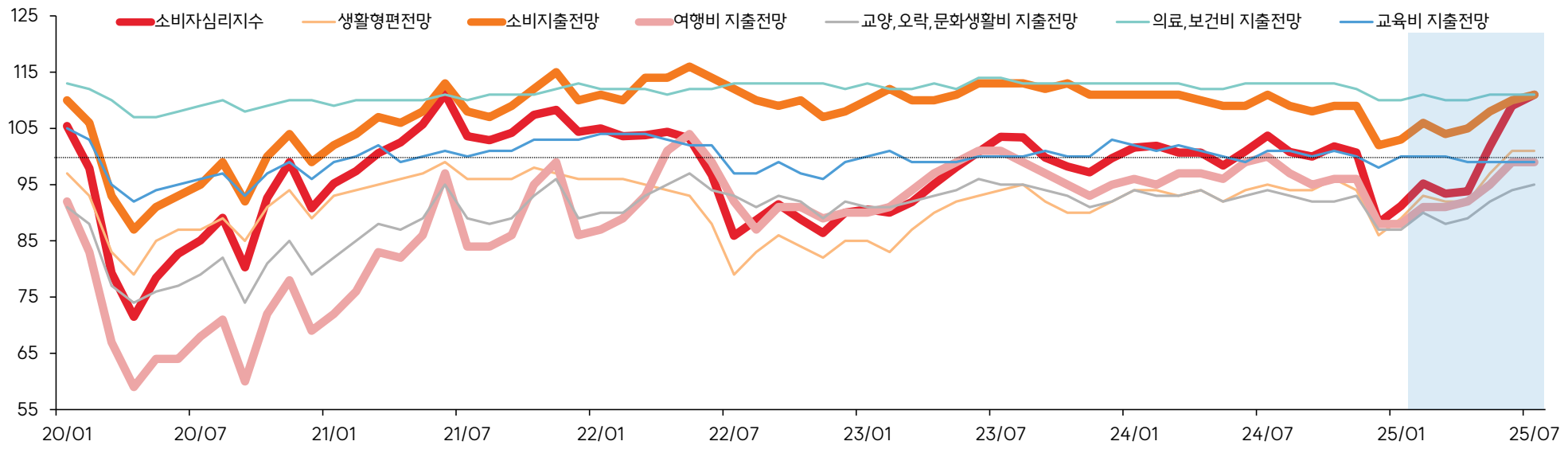
- 7월 소비자심리지수 2021년 6월 이후 최고치 기록
- 소비지출전망, 여행비지출전망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 기록, 연말 소비심리 개선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기대
- 우리나라 출국자수, 올해 1월 이후 감소하는 모습 보였지만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
- 여름 하계 성수기, 10월 연휴 효과 등 반영되면 지표 반등 추이나타날 것으로 예상
- 우리나라 찾는 외국인 관광객, K-POP 콘서트 및 K-콘텐츠 영향 꾸준한 증가 예상
- 9월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 시행, 연말 외국인 관광객 특수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
- 비빠진 인천공항, 특히 중국 오가는 항공기 운항 건수 올해 1월 6,400여건에서 7월 7,300여건으로 반등
- 하반기 아웃바운드 관광객 지표 개선 효과 가장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 최선호

8월 먹.자.놀. Top pick - 롯데관광개발, 하나투어, 모두투어, 노랑풍선

4년만 최고치 기록한 소비자심리지수

- 7월 소비자심리지수 110.8 기록하며 2021년 6월 111.1 이후 최고치 기록
-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,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 미친 것으로 파악
- 소비지출전망은 111, 여행비지출전망은 99 기록하며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 기록, 연말 소비심리 개선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예상
- 글로벌 관세협상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 부담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추세 보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
- 반면 뉴스심리지수(NSI)는 7월 기점으로 하락세 전환, 최근 단기 증시 조정 등 영향 있었을 것으로 풀이

소비자동향조사 주요 항목별 월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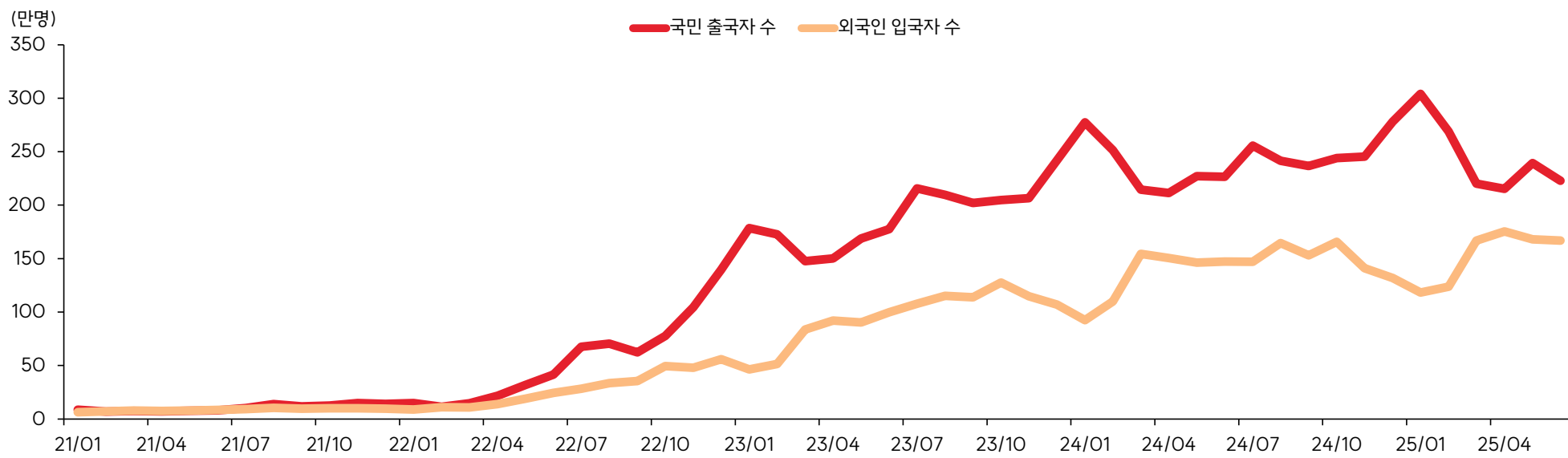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, SK증권

6월 잠시 쉬어 가는 구간

- 6월 외국인 입국자 수 회복했고, 우리나라 출국자 수는 소폭 감소
- 연휴 등 특별한 이벤트 없는 상황에서 잠시 쉬어 가는 구간으로 해석, 7월부터 다시금 뚜렷한 반등 추세 나타날 것으로 기대
- 어린이날, 석가탄신일 연휴 있었던 5월, 출국자 수 반등한 바 있음, 여름 휴가철 및 10월 연휴 앞두고 점진적 출국자 수 증가 예상
- 외국인 입국자, 7월 K-POP 콘서트 등 영향 받아 다시금 반등할 것으로 예상
- 3분기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도 긍정적인 요인

우리나라 국민 출국자 수 및 외국인 입국자 수 월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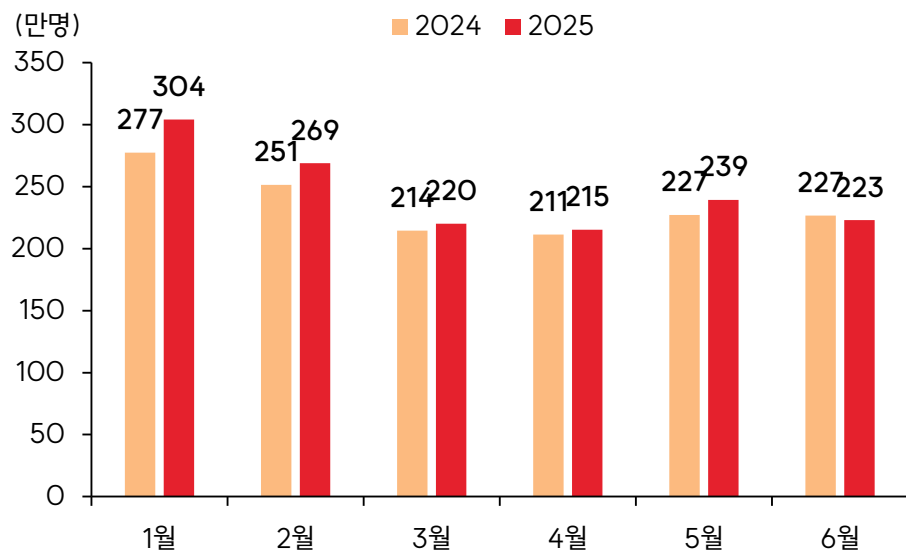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법무부, SK증권

앞으로 발표될 숫자들을 기대해 봅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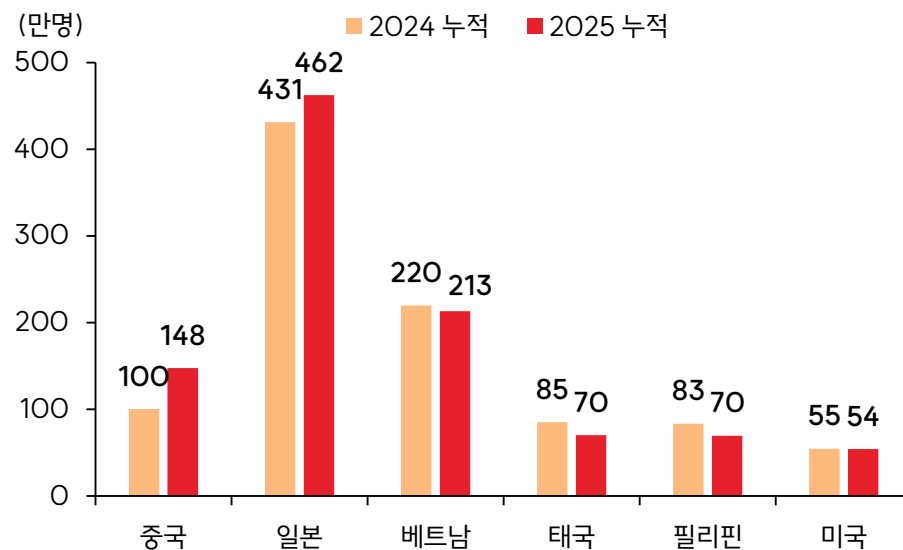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 출국자수는 올해 1월 이후 매월 감소하는 모습 보였음
- 5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국면에 접어들며 어린이날 및 석가탄신일 연휴를 틈타 해외 여행 떠나는 출국자 소폭 반등
- 6월 다시금 전월 대비 감소하는 모습 보였지만, 앞으로의 출국자수 지표는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
- 여름 하계 성수기(7/25~8/10) 중 하루 약 24만명이 인천국제공항 이용할 것으로 추정, 지난해 여름 휴가철 보다, 연말연시보다 더 많은 수준,
- 7월 한 달간 중국 항공기 운항 건수 약 7,300여건, 올해 가장 많은 운항 건수 기록,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

우리나라 국민 출국자수 YoY 증감



자료: 법무부, SK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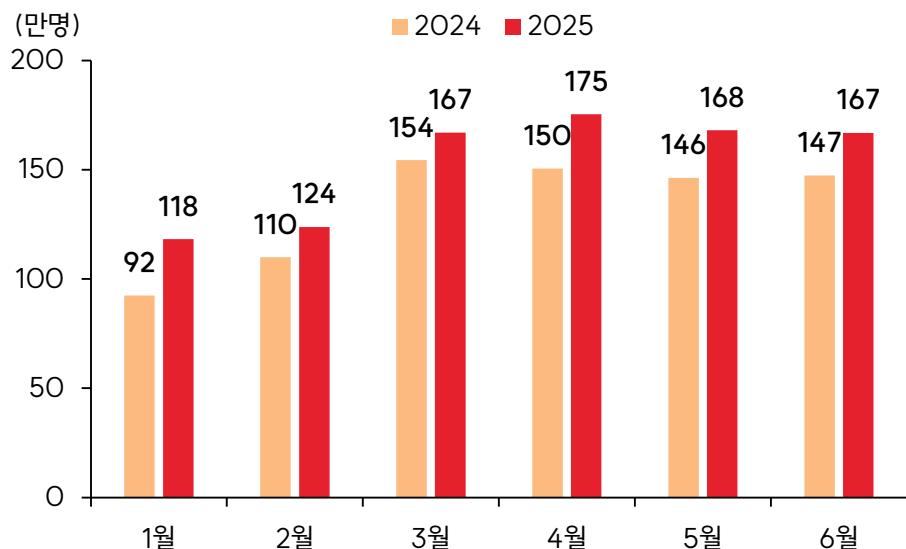
도착지별 내국인 출국자수 YoY 증감



자료: 법무부, SK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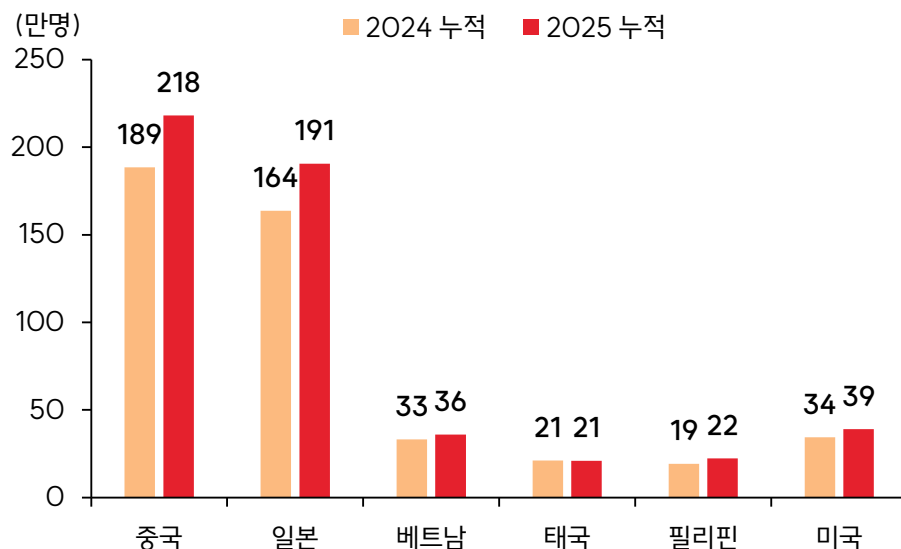
-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입국자 수 탄탄하게 유지 중
- 주요 여행 거점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많이 늘어난 모습 확인할 수 있음, 더운 날씨 피해 실내 박물관 등 관광 수요 증가 중
- 7월 국내에서 열린 K-POP 콘서트 영향, 오징어게임/케이팝데몬 헌터스 등 K-콘텐츠 영향으로 하반기 인바운드 관광객 꾸준히 우상향 예상
-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정책 9월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, 연말 외국인 관광객 특수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

외국인 입국자 수 YoY 증감



자료: 법무부, SK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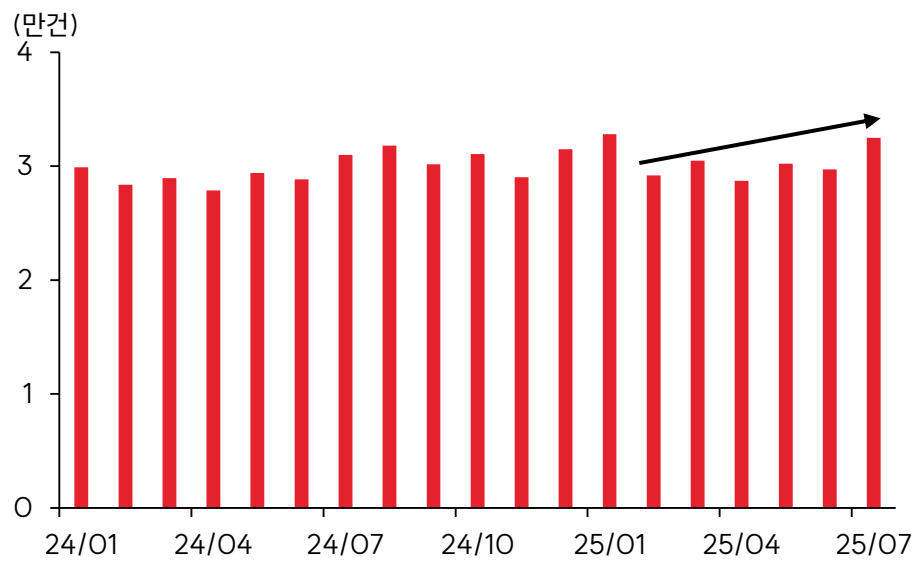
출발지별 외국인 입국자 수 YoY 증감



자료: 법무부, SK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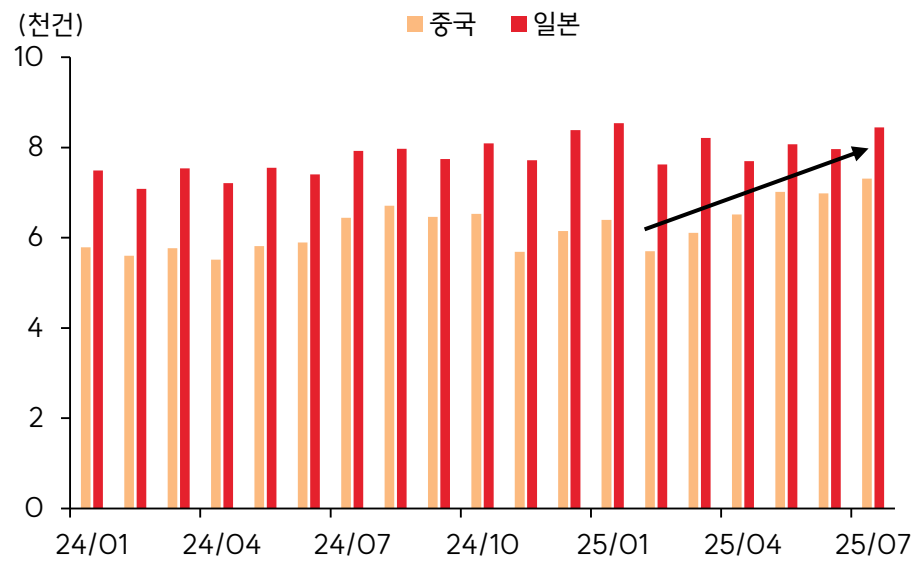
- 지난해 12월 4단계 확장공사 마무리 한 인천국제공항, CAPA 확대에 따른 이용객 증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
- 인천국제공항에서 전망한 여름 휴가철 성수기 공항 이용객, 일 24만명 수준 달할 것으로 전망, 작년 여름 휴가철 이용객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
- 지난해 월 평균 2만 9천건이었던 여객기 운항 건수, 올해 7월 3만 2천건까지 회복
- 특히 중국 오가는 항공기 운항 건수 증가 도드라지게 나타났음
올해 1월 6,400여건이었던 중국향 여객기 운항건수, 7월 기준 7,300여건까지 반등, 연말까지 지속적인 증가예상

인천국제공항 월별 국제선 여객기 운항 건수 추이



자료: 인천국제공항, SK증권

인천국제공항 중국 및 일본 월별 여객기 운항 건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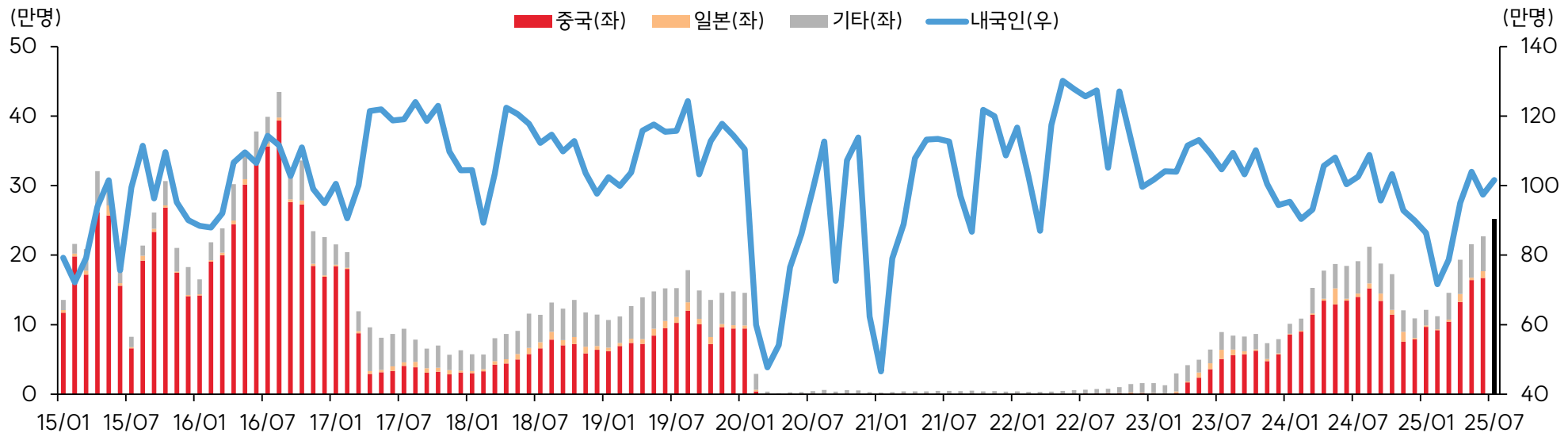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인천국제공항, SK증권

제주도 외국인 입도객 가파른 반등

- 7월 한 달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입도객은 약 25만 1천여명, 올해 가장 높은 수치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 완연하게 회복한 모습
- THAAD 배치로 인한 갈등 이전 최고 45만명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,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여유 충분히 있음
- 9월 말부터 내륙 지역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시 제주도 관광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있는 것도 사실
- 하지만 제주국제공항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 꾸준히 증편 되는 중이고 크루즈 운항 등 회복 추세에 있어 외국인 입도객 감소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
- 8월 첫째 주까지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도 YoY +10% 이상 증가한 숫자 기록 중인 것으로 파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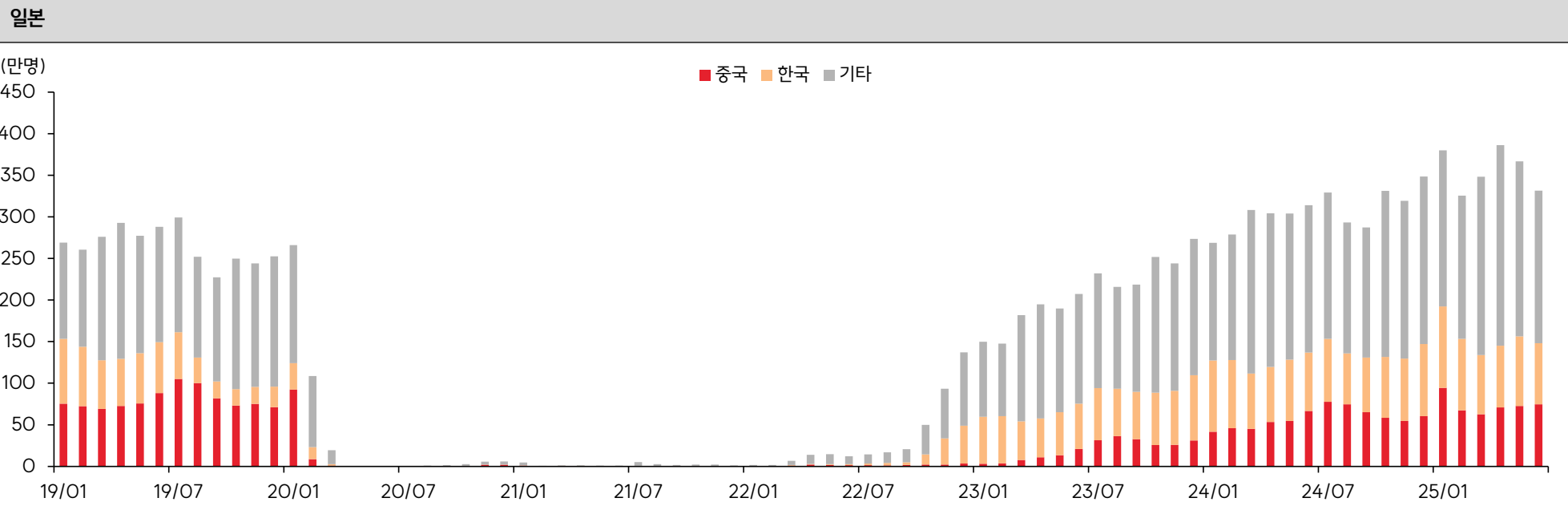
제주도 내외국인 입도객 추이



자료: 제주도관광협회, SK증권

자연재해 공포 커진 일본, 외국인 입국자 수 감소

- 올해 7월 일본 난카이 지역 대지진 우려 커지며 홍콩 등 중화권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취소 소식 이어졌음
- 하지만 중국 본토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크게 줄지 않았고, 홍콩 및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의 방일 관광객은 감소하는 모습 나타남
- 중국 본토에서의 관광객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, 우리나라와 일본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
- 아쉬운 점은 방일 관광객 감소가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 수 증가로 뚜렷하게 연결되는 모습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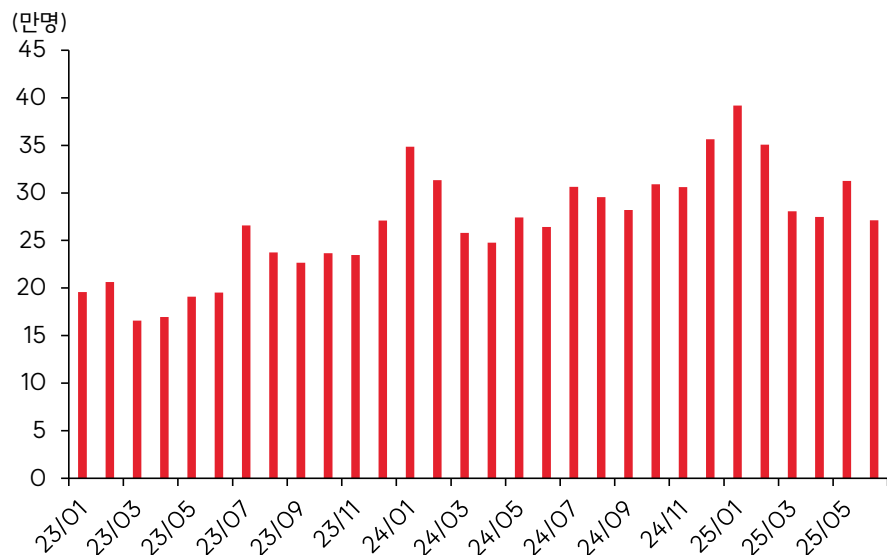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제주도관광협회, SK증권

하나투어 - 뚜렷한 수익성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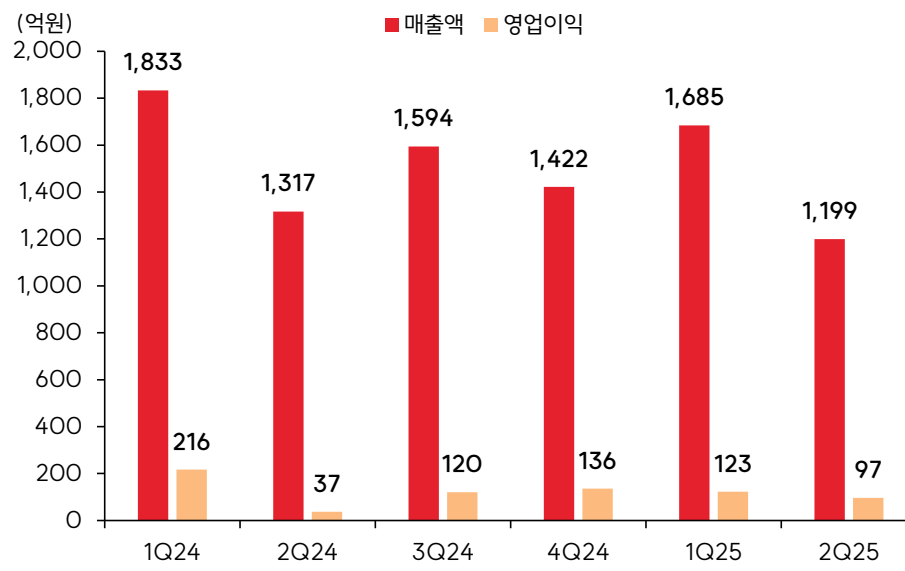
- 2Q25 매출액 1,199억원(YoY -8.9%), 영업이익 97억원(YoY +163.3%) 잠정실적 발표
- 정치적 불확실성 및 항공기 사고 등의 여파 남아있었던 2분기, 하반기부터는 매출도 점진적 개선 예상
- 지난해 2분기 티메프 사태에 따른 대손처리 등 영향 받았던 영업이익, 올해는 중고가 패키지 비중 증가 등 수익성 개선 모습 나타나
- 하반기 여행 및 소비 심리 개선, 장기 연휴 등 패키지 여행 상품 수요 증가 기대

하나투어 월별 송출객 추이



자료: 하나투어, SK증권

분기별 실적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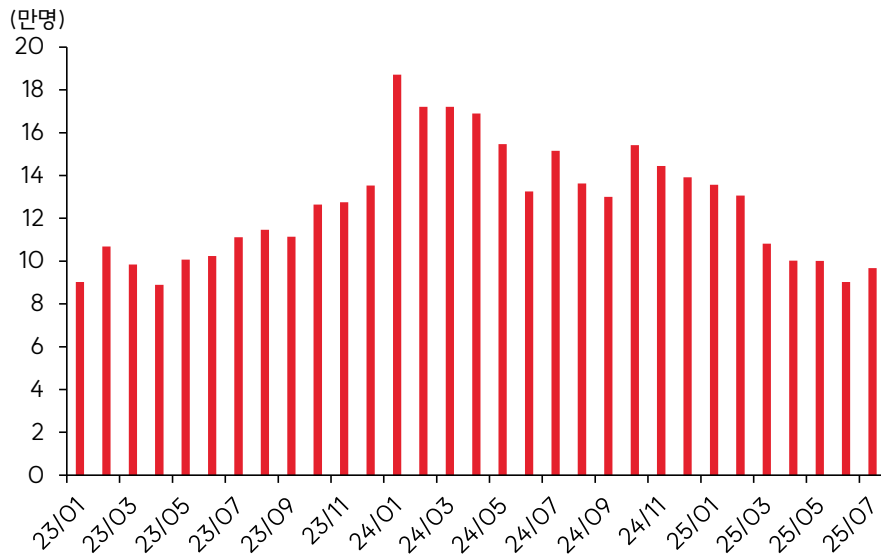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하나투어, SK증권

모두투어 -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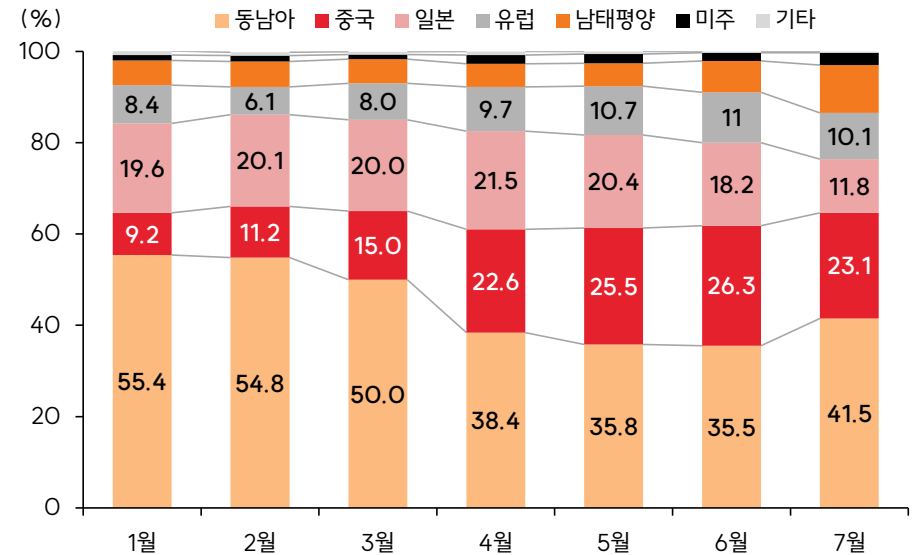
- 7월 송출객 약 9만 7천여명으로 반등 성공, 지난해 대비 -33.1% 감소한 수준이지만 향후 송출객 증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
- 중국발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, 중국향 우리나라 국민 출국자 수 증가 속도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
- 올해 9월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관광 허용으로 중국 오가는 여행객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, 중국 패키지 상품 확대 예상
- 5월 짧은 연휴 기간 출국자 수 증가했던 기억, 여름 휴가철 및 10월 명절 연휴 특수 등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

모두투어 월별 송출객 추이



자료: 모두투어, SK증권

지역별 패키지 송출객 비중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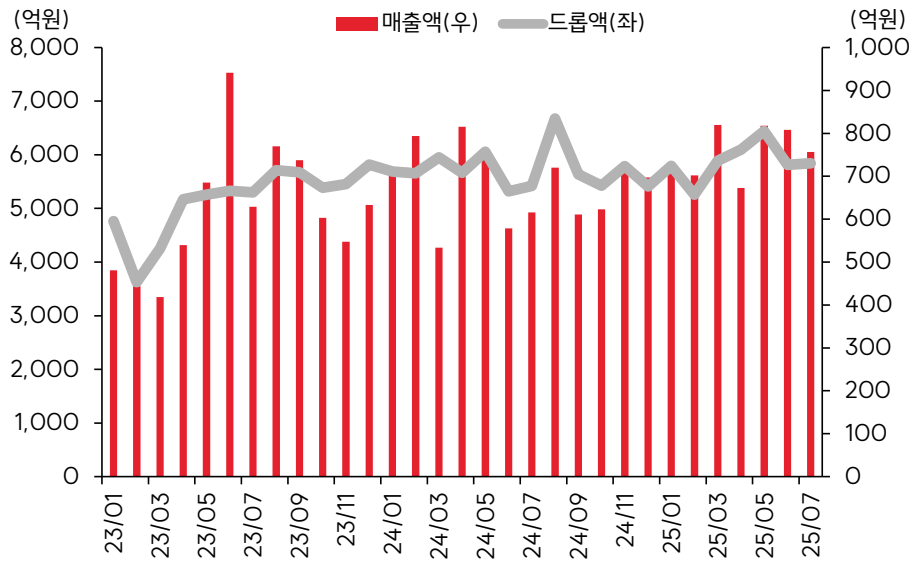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모두투어, SK증권

파라다이스 -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온다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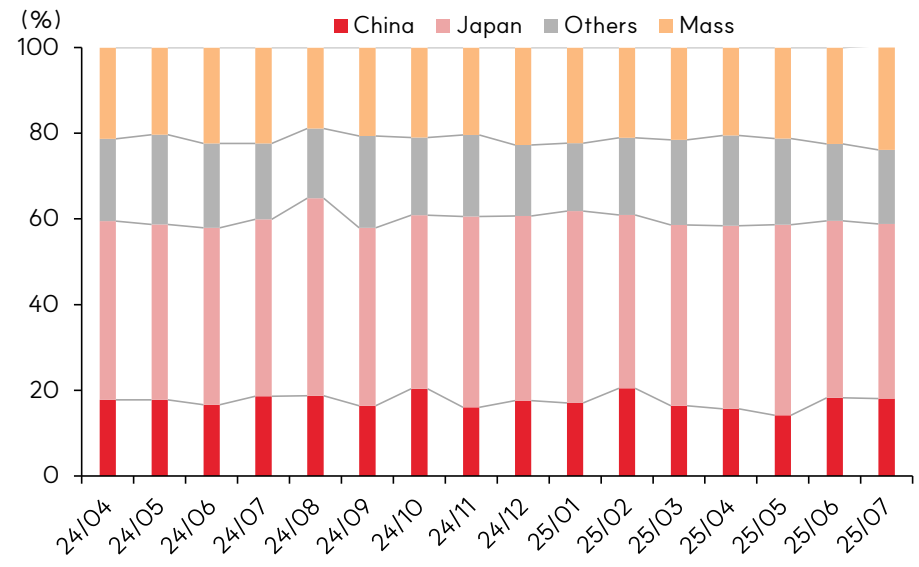
- 2Q25 매출액 2,845억원(YoY +4.1%), 영업이익 429억원(YoY +33.9%) 잠정실적 발표
- 9월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 시행되면 카지노 방문객/드롭액/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요인 충분함
- 하지만 최근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, 달라진 소비 성향과 관광 패턴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시점
단체 관광객 증가가 무조건적인 카지노 방문객 증가로 이어진다고 속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
- 우리나라 찾는 일본인 관광객 수 변화에도 주목, 6월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 34만명으로 홍보하는 모습 나타남

카지노 월별 드롭액 및 매출액 추이



자료: 파라다이스, SK증권

고객별 드롭액 비중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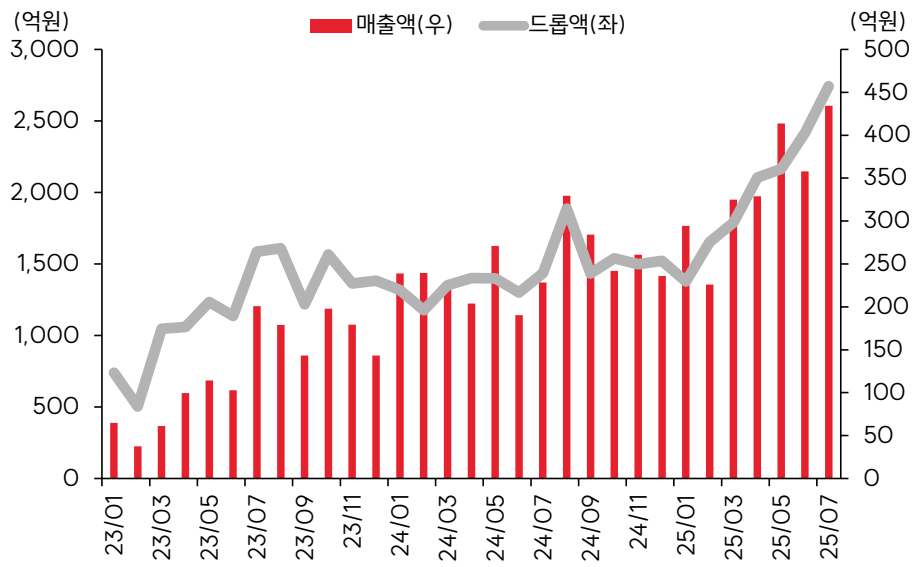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파라다이스, SK증권

롯데관광개발 - 분기 순이익 달성이라니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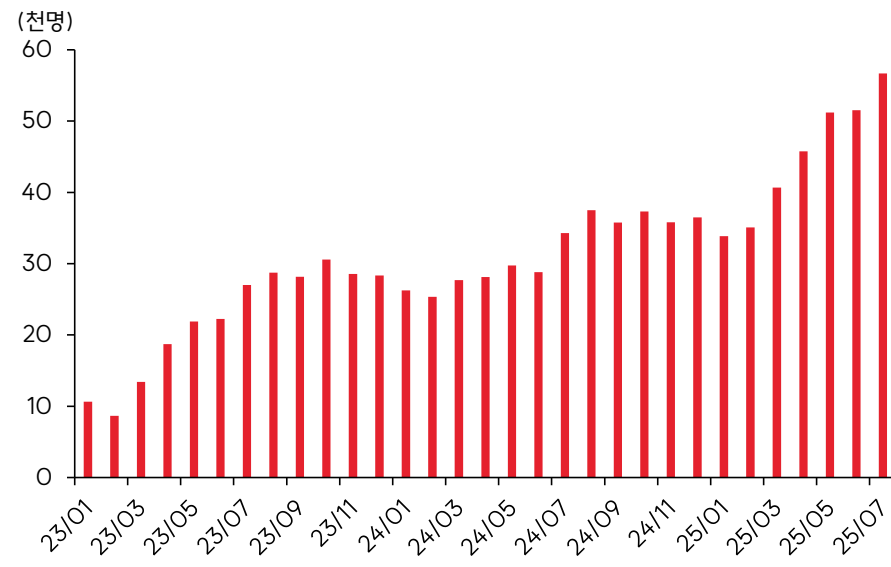
- 2Q25 매출액 1,577억원(YoY +35.8%), 영업이익 331억원(YoY +461.0%) 실적 발표
- 무엇보다 눈길 끌었던 것은 59억원의 분기 순이익을 달성했다는 점,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 덜고 실적주로 인식 전환되어 가는 중
- 연간 100억원 내외의 영업이익 달성 중인 여행사업부문, 올해도 실적 선방하는 가운데 카지노 월 매출 업그레이드 지속
- 7월 카지노 매출 434억원으로 월 400억원대 안착하는 모습, 홀드올 유지한다면 3분기 순이익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
- 여타 경쟁업체 대비 실적에 대한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

카지노 월별 드롭액 및 매출액 추이



자료: 롯데관광개발, SK증권

카지노 월별 방문객 수 추이



자료: 롯데관광개발, SK증권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(나승두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본 보고서는 기관 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 당사는 자료 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 투자판단 3단계(6개월기준) 15% 이상 > 매수 / -15%~15% > 중립 / -15%미만 > 매도

SK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(2025년 8월 8일 기준)

매수	94.94%	중립	5.06%	매도	0.00%
----	--------	----	-------	----	-------